향가의 첨기 현상에 대한 연구

이동석*

1. 머리말

향가에는 '첨기'라는 독특한 표기 방식이 쓰였다. 이를 보통 '말음첨기'라고 부르는데 대개는 '음절의 종성을 덧붙여 표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물론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 '말음'이 여러 가지 의미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이 용어가 동시에 '음절의 종성'과 '형태소 내의 한 음절'을 지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향가에서 나타나는 '첨기'는 그 대상이 '음절의 종성'인 경우와 '형태소 내의 마지막 음절'인 경우로 나뉘어진다.

본고는 이 두 경우를 나누어 고찰하고자 하는데 '말음첨기'라는 단순한 용어만을 가지고 이 두 현상을 지칭하는 것은 혼란을 불러 일으키므로 전자의 경우는 '종성첨기'라 부르고 후자의 경우는 '음절첨기'라 부르겠다.[1]

---

* 고려대 강사

1) 신중진(1998)은 '음절말 자음 첨기'와 '어말 음절 첨기'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閔賢植(1995)는 '말음소 첨기'와 '말음절 첨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본고는 용어를 간략히 하여 '종성첨기'와 '음절첨기'로 부르겠다.

'종성첨기'에는 '音, 尸, 叱, 隱, 只' 등의 한자가 쓰였고 '음절첨기'에는 '理, 呂, 里, 利, 次, 史, 乎, 等' 등의 한자가 쓰였다. '음절첨기'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들의 중세국어 형태나 방언형을 살펴보면 '理, 呂, 里, 利'는 음절 '리'의 첨기, '次'는 '지'의 첨기, '史'는 '시'의 첨기이고 '乎'는 '오'의 첨기, '等'은 '둘'의 첨기인 것으로 추정된다. 음절첨기자를 살펴보면 'ㅣ'로 끝나는 음절을 첨기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본고는 이러한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종성첨기'와 '음절첨기'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균형있게 다루고자 했다. 본고는 결과적으로 '종성첨기'와 '음절첨기'를 같은 기제로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결론은 각각의 기제를 별도로 살펴 본 후 이들의 연관성을 살펴 보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2. 종성첨기의 예와 원인

향가에서 종성을 첨기한 예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지면관계상 모든 예를 제시하지 않고 몇몇 예만 제시하도록 하겠다.

(1) 'ㅁ' 종성첨기의 예

ㄱ. 체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慕竹旨郎歌 8行>[2]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讚耆婆郎歌 3行>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兜率歌 3行>

吾衣身不喩仁人音有叱下呂 <隨喜功德歌 4行>

2) 본고에서 제시된 작품의 行은 원문을 충실하게 따랐다. 작품에 따라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행과 원문의 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밝혀 둔다.

ㄴ. 용언

法界餘音玉只出隱伊音叱如支. <懺悔業障歌 4行>

伊留叱餘音良他事捨齊 <總結无盡歌 10行>

(2) 'ㄹ' 종성첨기의 예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旨郎歌 7行>

二尸掌音毛乎支內良 <禱千手觀音歌 2行>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怨歌 2行>

仏体叱海等成留焉日尸恨 <普皆廻向歌 5行>

(3) 'ㅅ' 종성첨기의 예

ㄱ. 체언

心未際叱肹逐內良齊 <讚耆婆郎歌 8行>

舊理東尸汀叱 <彗星歌 1行>

乾達婆矣遊烏隱城叱肹良望良古 <彗星歌 2行>

物叱好支栢史 <怨歌 1行>

ㄴ. 용언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慕竹旨郎歌 8行>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 <隨喜功德歌 6行>

功德修叱如良來如 <風謠 4行>

奪叱良乙何如爲理古 <處容歌 8行>

(4) 'ㄴ' 종성첨기의 예

千隱手 叱千隱目肹 <禱千手觀音歌 5行>

一等隱枝良出古 <祭亡妹歌 7行>

(5) 'ㄱ' 종성첨기의 예

阿耶 唯只伊吾音之叱恨隱潽陵隱 <遇賊歌 9行>

隔句 必只一毛叱德置 <稱讚如來歌 9行>

(1)~(5)는 한자를 훈차하여 국어의 단어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굳이 '音'이나 '尸' 같은 것이 음차되어 종성을 표시할 필요가 없다. 훈차한 한자의 의미만을 가지고도 그 단어의 마지막 음절 종성까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성을 따로 첨기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체언의 종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그러나 향가의 '종성첨기' 자체가 수의적이기 때문에 '종성첨기'가 필수직인 표기법이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만약 훈차한 단어의 마지막 음절 종성을 한자로 음차해야만 의미가 통했다면 '종성첨기'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종성첨기'가 필수적인 원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6) '종성첨기'의 수의성

ㄱ. 慕人有如白遣賜立阿邪 <願往生歌 8行>
吾衣身不喩仁人音有叱下呂 <隨喜功德歌 4行>

ㄴ. 直等隱心音矣命叱使以惡只 <兜率歌 3行>
城上人 佛道向隱心下 <常隨仏學歌 9行>

ㄷ. 於內秋察早隱風未 <祭亡妹歌 5行>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怨歌 2行>[3]

---

3) 일반적으로 '秋察'을 'ᄀᆞ술'로 해독하고 '秋察尸'도 'ᄀᆞ술'로 해독한다. 그런데 '秋察尸'를 'ᄀᆞ술'로 해독하면 그 표기는 'ᄀᆞ술-술-ㄹ'이 되어 체언을 음절 첨기한 후 다시 종성 첨기를 하는 아주 희귀한 예에 속하게 된다. 梁柱東(1965: 613~614)는 이를 '말음재첨기'라 하고 '秋察羅'<請轉法輪歌> '月羅理'<讚耆婆郎歌, 怨歌>도 역시 같은 경우라고 하였는데 이보다는 '秋察尸'을 'ᄀᆞ술졀'(가을철)로 보고 이때의 '尸'는 '졀'의 'ㄹ'을 첨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와 같은 구성은 훈민정음 표기로 'ᄀᆞᄋᆞᆯ졀'<太平廣記諺解 1:36>, '봄

따라서 '종성첨기'의 역할은 단어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차자표기'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 '첨기' 현상의 원인을 언급하면서 '종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짤막하게만 기술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고는 좀더 구체적으로 원인에 접근하고자 한다. 물론 '종성에 대한 인식'이 '첨기'의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종성에 대한 인식'은 『訓民正音』에서 종성을 중성 밑에 받쳐서 표기하도록 한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즉 『訓民正音』의 삼분법은 향가 표기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권재선 1987:107, 李丞宰 1989, 1991, 김완진 · 정광 · 장소원 1997:154~155, 신중진 1998).[4]

결'<靑丘永言 35> 등이 있다.

4) 김상돈(1997)은 권재선(1987:107)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자표기법의 종성분리표기도 결국은 성운학의 운미구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음절구조에 대한 발상은 성운학이론에서 배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아울러 兪昌均(1970, 1979:83~96)는 『訓民正音』의 삼분법이 「蒙古韻略」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였는데 임용기(1992)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중국의 성운학을 바탕으로 하여 『訓民正音』의 삼분법이 마련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향가 표기체계 자체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의 성운학에 앞서 향가표기자들이 삼분법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첨기'는 향가의 표기체계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다. 이 '첨기'는 곧 음절구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므로 『訓民正音』의 음절구조에 대한 발상은 성운학에서 배태된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부터 이미 인식되어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의 성운학에서 삼분법에 대한 조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훨씬 이전에 우리의 차자표기 체계에서 종성을 분리하여 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삼분법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뜻한다. 고립어인 중국어에 반하여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첨가어이기 때문에 어간과 어근의 형태일 때는 음절말에 위치하던 종성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 조사, 어미와 연결될 때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활발하므로 옛 선인들이 일찍이 종성을 분리하여 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임용기(1992)는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가 차자표기법과 반절법의 불완전함을 극복하려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관점을 달리 하면 훈민정음은 차자표기법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그러나 종성에 대한 인식이 왜 '첨기' 현상으로 표출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첨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결정적 원인은 향가의 '표기방식'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연철 표기를 통해 각각의 표기자가 어떤 요소에 대응되는지를 살펴보면 흥미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7) 연철 표기
自矣心米 <遇賊歌 1行>
得賜伊馬落人米无叱昆 <隨喜功德歌 7行>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旨郎歌 7行>
心未際叱肹逐內良齊 <讚耆婆郎歌 8行>
於內秋察早隱風未 <祭亡妹歌 5行>
心未筆留 <礼敬諸佛歌 1行>
曉留朝于萬夜未 <請仏住世歌 5行>

(7)의 연철 표기는 '어원을 밝혀 적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나는 대로 적는' 표기이다. 그런데 '차자표기'라는 특수성이 단어 마지막 음절의 종성을 중복시키고 만다.

(8) ㄱ. 心伊(마음이[maimi]) = 心(마음[maim]) + 伊(-이[i])
ㄴ. 心米(마음이[maimi]) = 心(마음[maim]) + 米(-ㅁ[m] + -이[i])

(8ㄱ)은 어원을 밝혀 적은 것으로 표기 자체에서 체언과 조사의 분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8ㄴ)처럼 발음나는 대로 표기를 하면 '心'이 '마음'[maimi]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米'에서 다시 체언의 종성 '-ㅁ'이

있다. 둘 다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적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삼분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중복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음'과 '-이'가 결합한 (8ㄴ) '마음 + -ㅁ + -이'와 같은 구성에서 조사를 제거하면 단독형은 '마음 + -ㅁ'이 된다. 이 단독형을 그대로 차자표기하면 '마음'에 대해서는 '心'을 사용하고 '-ㅁ'에 대해서는 '音'을 사용하여 결국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은 단독형이 '心音'이 된다. 체언의 곡용형에서 체언 말음절의 종성이 중복되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어 체언의 단독형에서도 말음절 종성을 중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체언의 곡용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인, 용언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체언과 용언의 어간은 훈차하고 조사와 어미는 음차하여 서로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과 용언과 어미의 결합형을 발음나는 대로 표기할 때 서로 다른 표기 방식이 결합하면서 중첩 부분이 생겨나 '종성첨기'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종성첨기' 현상은 '종성에 대한 인식'과 '향찰 표기의 訓主音從'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5]

3. 음절첨기의 예

종성첨기는 향찰 표기 방식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였지만 음절첨기는 어디에서도 그 필연성을 찾을 수 없다.[6] 음절첨기가 일어나는 경우는

---

5) 민현식(1995)는 '말음첨기는 어휘형태소 단위의 차자 표기법이 가지는 결정적 약점인 표음성의 부족을 예방하고 표기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 낸 표기 원리이므로 어디까지나 형태소문자로서의 차자법을 보완하기 위한 보충적 표기 원리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본고는 이와는 달리 첨기 현상이 차자표기 방식에 의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6) 본고는 앞에서 종성첨기가 필수적이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종성첨기가 수의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필수적이라는 것과 필연적이

종성첨기에서와 같이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을 훈차하는 경우인데 이 때의 음절은 대개가 개음절이며 그 음절의 모음은 대개 'ㅣ'로 이루어져 있다.

첨기되는 음절의 구조가 대부분 'CV'이며 이 때 'V'가 대개 'ㅣ'라는 공통점은 우연의 일치로 넘겨 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이유를 밝힌다면 음절첨기의 원인도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향가에 나타나는 음절첨기자를 한 음절로 해독한 시도는 小倉進平(1929), 홍기문(1956), 梁柱東(1965), 정렬모(1965), 徐在克(1975), 金完鎭(1980), 고창수(1992), 兪昌均(1996) 등 대부분의 향가 해독 연구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음절첨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설명이 없어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음절첨기자로 쓰인 한자 하나하나를 검토해 나가면서 부족하나마 음절첨기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음절첨기자 '理, 呂, 里, 利, 次, 史, 乎, 等' 중에서 '理'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9) 음절첨기 '理'

ㄱ. 舊理東尸汀叱 <彗星歌 1行>
倭理叱軍置來叱多 <彗星歌 2行>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此肹喰惡支治良羅 <安民歌 3行>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讚耆婆郎歌 4行>
逸烏川理叱磧惡希 <讚耆婆郎歌 6行>

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종성첨기가 필연적이었다고 기술한 것은, 종성첨기 자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향가의 표기체계상 필연적인 결과라는 의미이다. 즉 본고의 의도는, 종성첨기는 수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표기가 나타나게 된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의미이다.

世理都 之叱逸烏隱第也 <怨歌 8行>
ㄴ.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旨郎歌 7行>

'理'의 예는 향가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다. (9ㄱ)은 체언의 예이고 (9ㄴ)은 용언의 예이다. (9ㄱ) 중 '世理'는 '누리'<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a>를 통하여, '川理'는 '나리'<樂學軌範 5:8, 動動>를 통하여 '理'가 음절첨기임을 알 수 있다.[7] 나머지 예들은 이 두 예에 유추하여 충분히 마지막 음절에 '리'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舊理'와 '倭理'는 중세국어에서 각각 '녜'와 '예'의 형태를 보였는데 '누리 > 뉘', '나리 > 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녀리 > 녜', '여리 > 예'의 과정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들 체언의 말음절을 '리'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10)과 같다.

(10) (9ㄱ)의 변천과정
舊理 : njəri > njəi > nje
倭理 : jəri > jəi > je
窟理 : kuri > kul
汀理 : pjəri > pjəl(h)
川理 : nari > nai > nɛ
世理 : nuri > nui > nü

세 번째 예인 '窟理'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해독이 다르다. 대체로 '굴'(小倉進平 1929), '구믈'(梁柱東 1965:273~276), '코리'(김선기 1993:228), '고리'(兪昌均 1996:355), '구리'(홍기문 1956:133~134, 정렬모 1965:290, 金完鎭 1980:75, 徐在克 1975:13) 등의 해독을 하고 있는데 '理'의 음에 대응시킨다면 '코리'나 '고리', '구리'로 보는 견해가 가장 적합할

7) 석독구결에 '世ㅣ'<大方廣佛華嚴經 19:4-7> 형태가 나타난다(이건식. 1995).

것이다.[8]

이렇게 볼 때 (10)의 다른 예들이 대부분 'r'이 탈락한 후 모음 축약을 일으킨 데 반해 '窟理'는 자음 'r'이 아닌 모음이 탈락하여 'r'이 앞 음절의 종성 'l'이 되는 현상을 보여 다른 예들과 변화 유형이 다르다.[9]

네 번째 예인 '汀理'도 '窟理'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단어로 생각된다. '汀理'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믈ᄀᆞᆺ'(小倉進平 1929), '나리'(梁柱東 1965:339~340), '믈시블'(徐在克 1975:17), '믈서리'(金完鎭 1980:86~87) 등의 의견이 주장되었다.

본고는 '汀理'를 '*벼리'[崖]로 해독한다. 고려가요에 '벼랑'의 의미로 '별ㅎ'<樂學軌範 5:8, 動動, 樂章歌詞 上:2, 鄭石歌>의 예가 나오고 중세국어의 문헌에는 '비러'[崖]<杜詩諺解-初刊本 21:34b>, '비레'[崖]<杜詩諺解-初刊本 8:12a>, '비례'[崖]<杜詩諺解-重刊本 6:46b>의 예가 나오

---

8) '구리'로 본 여러 견해들은 읽는 법이 일치하더라도 의미해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지만 본고는 음절첨기현상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기존 해석들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9) 'kuri > kul'과 같은 과정을 상정하는 것은 '窟理'의 의미를 '窟'로 볼 때 가능하다. 徐在克(1975:13)는 '窟理'를 '굴다'(詛呪하다, 불다[噓]의 의미)의 명사형으로 보아 '窟理叱大'의 의미를 '歎息소리, 詛呪소리'로 보았고 金完鎭(1980:75)은 '멍텅구리'의 '구리'에서 '어리석음'의 의미를 갖는 어근 '굴'을 상정하여 '窟理'의 의미를 '痴子, 愚者'의 의미로 보고 '窟理叱大'의 의미를 '大衆'으로 보았다.

그러나 '窟理'의 의미는 '굴'(窟)로 보아야 한다. '멍텅구리'에서 '어리석음'의 의미는 '멍팅(>멍청)'이 담당하는 것이지 '굴'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멍텅구리'에서의 '굴'은 '*멍텅굴다'와 같은 용언에서 온 용언화접사로 볼 수도 있고 '구리' 전체를 명사화접사로 볼 수도 있다.

'窟理'의 의미를 '굴'(窟)로 볼 때 '窟理叱大'의 의미는 '굴 속에 갖힌 무리'의 의미를 갖는다. '플라톤'의 '동굴비유'에서 굴 속에 갖힌 인간이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 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굴 속에 갖힌 무리'란 '어리석은 대중'을 의미하게 된다. '窟理'를 '굴'(窟)의 의미로 보아도 해독상 문제가 없는데도 새로운 어근 '굴'[痴, 愚]을 등장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며 「龍飛御天歌」에는 '쇠벼ᄅᆞ'[淵遷]<龍飛御天歌 3:13b>의 형태가 나온다.

'*벼리'/pjəri/라는 재구형은 '비러/pirə/, 비레/pirəi/, 비례/pirjəi/'와 음운론적으로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쇠벼ᄅᆞ'의 '벼ᄅᆞ(벼ᄅᆞ)'와는 마지막 음절의 모음만 다를 뿐이다.

'沙是八陵隱汀理也中'은 '모래가 덮인 물가의 벼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鄭石歌」의 '별ㅎ'이 '삭삭기 셰몰애 별헤 나ᄂᆞᆫ'과 같이 '모래'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杜詩諺解」의 '비러, 비레, 비례' 등의 原漢字인 '崖'는 '물가'와 '벼랑'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게다가 「龍飛御天歌」의 '쇠벼ᄅᆞ'는 '淵遷'과 대응되어 역시 '쇠벼ᄅᆞ'가 '물가에 있는 벼랑'(소(沼) + -ㅣ + 벼ᄅᆞ)의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별ㅎ, 비러, 비레, 비례, 벼ᄅᆞ(벼ᄅᆞ)'의 의미는 단순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물가에 위치한 높은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향가에서 '*벼리'와 대응될 수 있는 훈차자가 '崖'가 아니라 '汀'이지만 '崖'와 '汀'은 그 의미가 또 유사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汀'은 '물가'나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섬'을 의미하는데 특히 후자의 의미는 '沙是八陵隱汀理也中'이라는 설명과 맞아떨어진다. '모래가 쌓여 이루어진 섬'이 높은 '벼랑'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별ㅎ'이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점, '벼ᄅᆞ'가 '淵, 沼'와 관련이 있는 점으로 보아 '별ㅎ, 비러, 비레, 비례, 벼ᄅᆞ(벼ᄅᆞ)' 등은 지금의 '벼랑'처럼 높은 지대만 의미하지 않고 물가의 비교적 높지 않은 지대까지도 의미하였다고 보여진다. 이상으로 살펴 본 바에 따라 '汀理'는 '*벼리'로 재구한다.

지금까지 체언의 마지막 음절 '리'를 첨기한 것으로 보이는 (3ㄱ)의 예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두 가지 양상을 보이며 변천을 보이는데 먼저 '舊理, 倭理, 川理, 世理' 등에서는 /r/이 탈락한 후 모음축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窟理, 汀理'는 이와는 달리 'kuri > kul', 'pjəri > pjəl(h)'처럼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탈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변천 과정을 뒤집어 오히려 그 반대로 'kul > kuri', 'pjəl > pjəri'의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9ㄴ)의 '慕理'는 용언 어간 '그리-'를 나타낸 것으로 역시 '理'가 어간의 일부인 '리'를 첨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음절첨기자 '呂'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1) 음절첨기 '呂'

ㄱ. 世呂中止以友白乎等耶 <請仏住世歌 4行>
皆往焉世呂修將來賜留隱 <常隨仏學歌 2行>

ㄴ. 慕呂白乎隱仏体前衣 <礼敬諸佛歌 2行>
塵塵處物叱邀呂白乎隱 <稱讚如來歌 5行>

(11ㄱ)은 체언의 마지막 음절을 '呂'로 첨기한 것이고 (11ㄴ)은 용언의 마지막 음절을 '呂'로 첨기한 것이다. (9ㄴ)의 '慕理'와 (11ㄴ)의 '慕呂'를 비교해 보면 '呂'가 역시 '리'의 음을 첨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1ㄱ)의 예 '世呂' 역시 (9ㄱ)의 '世理'와 대응되므로 '呂'가 '리'의 첨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1ㄴ)의 '邀呂'도 해독이 '리'로 끝나리라고 추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邀呂'를 '마ᄌᆞ리-'(小倉進平 1929, 兪昌均 1996:880), '뫼시리-'(梁柱東 1965:711) '모리-'(金完鎭 1980:166) 등으로 보는 시도가 있었다.

이 중 '마ᄌᆞ리-'와 '뫼시리-'는 '呂'를 선어말어미로 보는 해석인데 객체존대선어말어미 '白' 앞에 선어말어미 '-리-'가 올 수 없으므로 '呂'를 용언 어간 뒤에 붙은 선어말어미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金完鎭 1980:161). 이에 반해 金完鎭(1980:161, 166)은 '뫼다'의 어간이 고대국어에서는 '*모리다'였을 것으로 보고 '邀呂'와 '邀里'를 '모리-'로 읽었다.

그러나 본고는 '邀呂'와 '邀里'를 '기드리-' 또는 '기리-'로 읽는다. '기

드리다'는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중세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였고 '기리다' 역시 '높이다'의 의미로 중세국어에서 활발하게 쓰였다. 이 두 용언의 어간 마지막 음절이 '리'이고 의미도 한자 '邀'와 통하기 때문에 굳이 확인 불가능한 '*모리다' 형태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한편 (9)와 (11)을 비교할 때 『三國遺事』의 향가작품에서 쓰인 '理'가 『均如傳』의 향가작품에서는 '呂'로 대체된 현상을 읽을 수 있는데 이는 시대나 기록자의 경향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음절첨기자 '里'에 대해 살펴보겠다.

(12) 음절첨기 '里'

ㄱ. 落句 吾里心音水淸等 <請仏住世歌 9行>

ㄴ. 刹刹每如邀里白乎隱 <礼敬諸佛歌 6行>

(12ㄱ) '吾里'는 '우리'에 대응되고 '邀里'는 (11ㄴ)의 '邀呂'와 대응되므로 역시 '里'는 '리'의 첨기라고 볼 수 있다. 『三國遺事』의 향가에서 '理'로 쓰였던 것이 『均如傳』의 일부 작품에서는 '里'로 대체된 현상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음절첨기자 '次'에 대해 살펴 보겠다.

(13) 음절첨기 '次'

蓬次叱巷中宿尸夜音有叱下是 <慕竹旨郎歌 8行>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讚耆婆郎歌 7行>

(13)의 첫 번째 예 '蓬次'를 梁柱東(1965:179~182)는 '다봇'이라 읽었으나 金完鎭(1980:65)은 방언형 '다보지'를 고려하여 '다부지'라 읽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理, 呂, 里'는 모두 한 음절인 '리'를 첨기한 것이었는데 (13)에서는 '次'가 과연 종성첨기인지 아니면 음절첨기인지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理, 呂, 里'처럼 체언을 첨기한 경우와 용언을 첨기한 경우가 같이 보인다면, 즉 '次'가 용언의 일부를 첨기한 예가 보인다면 그 어간형을 추정해 봄으로써 '次'가 종성첨기로만 쓰이는지 아니면 음절첨기로도 쓰이는지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용언을 첨기한 예가 보이지 않아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두 번째 예인 '枝次'를 보면 이는 중세국어의 '가지'에 대응되어 '次'가 '지'의 음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10] 한편으로는 이 경우 '枝次'가 주어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체언과 주격조사의 결합인 '갖 + -이'의 구성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龍飛御天歌」 7章의 'ᄇᆞ야미 가칠 므러 즘겟 가재 연ᄌᆞ니'에서는 '갖 + -애'의 구성을 가져 '枝次'를 '갖 + -이(주격조사)'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음절첨기자 '史'에 대해 살펴보겠다.

(14) 음절첨기 '史'

臣隱愛賜尸母史也 <安民歌 2行>
兒史年數就音墮支行齊 <慕竹旨郎歌 4行>
耆郎矣兒史是史藪邪 <讚耆婆郎歌 5行>
兒史沙叱望阿乃 <怨歌 7行>
兒史毛達只將來呑隱日 <遇賊歌 2行>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讚耆婆郎歌 9行>
命乙施好尸歲史中置 <常隨仏學歌 6行>

'次'와 마찬가지로 '史'는 중세국어 한자음으로는 'ᄉᆞ'이고 현대국어 한자음으로는 '사'이지만 향가에서는 '시'로 음독된다. 그 이유 역시 李

10) '次'를 중세 한자음 'ᄎᆞ'나 현대 한자음 '차'로 읽지 않고 '지'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李得春(1993), 兪昌均(1996:243~244)에서 밝힌 대로 '次'의 中古音이 'ᄎᆞ'가 아닌 '지'였기 때문이다.

得春(1993), 兪昌均(1996:191-192)에서는 '史'의 中古音이 '시'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중세국어로 해독할 경우에도 '史'는 '시'에 해당되므로 '史'는 中古音으로 해독하는 게 옳다.

먼저 '母史'는 중세국어의 '어ㅿ'에 대응된다. 중세국어의 '어ㅿ'는 '어버이'를 의미하므로 정확히 '母史'에 대응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어ㅿ'가 '어머니'의 의미에서 '어버이'의 의미로 확대된 것으로 보면 '母史'를 '어ㅿ'로 해독할 수 있다(梁柱東 1965:255).[11]

'栢史'는 중세국어의 '잣'에 대응되는데 뒤에 속격의 'ㅅ'이 연결되므로 '栢史'가 체언 단독형이어야 한다. 따라서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에까지 이어져 오는 형태는 일음절어 '잣'이지만 신라 시대에는 이음절어인 '자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歲史'는 'ᄉᆞᅀᅵ'로 해독된다. 梁柱東(1965:823)는 '歲史'를 'ᄉᆞᆺ'으로 분석하였는데 '歲'를 音借字로 보고 '史'를 말음첨기자로 보아 중세국어의 'ᄉᆞᆺ'('사이, 틈'의 의미)에 대응시켰다.[12] 그러나 본고는 이를 'ᄉᆞᅀᅵ'에 대응시킨다. 'ᄉᆞᅀᅵ' 역시 'ᄉᆞᆺ'과 마찬가지로 중세국어에서 '사이, 틈'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본고는 '歲'를 音借字로 보지 않고 訓借字로 본다. 중세국어의 용례에서는 'ᄉᆞᅀᅵ, ᄉᆞ이'가 시간보다는 공간의 의미로 쓰인 예가 많지만 '요ᄉᆞᅀᅵ, 요ᄉᆞ이'에서 '시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 국어에도 이어져 '요사이, 요새'에서 '사이'는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눈깜짝할 사이', '어느새'에서의 '사이, 새'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의 '사이, 새'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다. 또한 '중세와 현대의 사이'와 같은 문맥에서 쓰인 '사이'도 공간의 의미보다는 시간의 의미를

11) 그러나 梁柱東(1965:256)는 '母史'를 '엇 + -이-(서술격조사)'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金完鎭(1980:72)은 梁柱東(1965:256)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는 듯이 기술하면서 실제로는 '母史'를 체언 단독형 '어ㅿ'로 보았다.

12) 金完鎭(1980:194~195)은 역시 梁柱東(1965:823)를 그대로 따르는 듯이 기술하면서 실제로는 '歲史'를 'ᄉᆞᅀᅵ'로 해독하였다.

갖는다.

'요사이'와 같은 의미인 '요즈음, 요즘'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이는 중세국어에서 '즈음, 즈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즈음, 즈음'은 공간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를 균형있게 가지고 있는 편이었다. 그만큼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皃史'는 '즈싀'로 해독할 수 있다. 梁柱東(1965:122)와 金完鎭(1980:61)은 '皃史'를 단독형 '즈싀'로 해독하지 않고 말음첨기가 된 형태나 문법형태소가 결합한 형태로 해독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史'의 음가가 'ㅅ'이라기보다는 '시'인 점을 보면 '모습'을 의미하는 중세국어 단어 '즛'이 그 이전에는 2음절어로 '즈싀'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13] 이상으로 '史'는 음절 '시'의 첨기로 본다.

다음으로 음절첨기자 '利'에 대해 살펴보겠다.

(15) 음절첨기 '利'
道尸掃尸星利望良古 <彗星歌 6行>

역시 마지막 음절 '리'의 첨기로 본다. '彗星歌'에서는 종성첨기일 경우에는 '道尸'에서처럼 '利'가 아닌 '尸'를 썼기 때문에 이 '利'가 종성첨기가 아닌 음절첨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彗星歌' 안에서 '舊理'의 예는 음절첨기를 위하여 '理'를 사용했기 때문에 일관성을 잃게 된다. '彗星歌' 안에서 첨기의 기능을 갖는 것은 '尸'와 '理'와 '利'인데 이들은 각기 다른 한자이기 때문에 이들 각각이 모두 다른 기능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향가에서 '利'가 쓰인 예는 (14)가 유일하므로 섣불리 결정을 내

13) 물론 金完鎭(1980)처럼 '皃史'를 '즛'과 문법형태소와의 결합으로 보더라도 해독상 아무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릴 수 없다. '音'이나 '尸'는 종성첨기로서 여러 작품에 걸쳐 비교적 많은 예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보편화된 표기로 간주할 수 있지만 '利'는 현전하는 향가 내에서는 보편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利'의 한자음이 '리'라는 점, 음절첨기자로 쓰인 한자들이 대부분 '리'의 독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利'는 '리'로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乎, 等'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전까지의 음절첨기자들은 모두 모음 'ㅣ'로 끝나는 것이었는데 '乎, 等'은 이들과 다른 모음을 가지는 예이다.

(16) ㄱ. 紫布岩乎辻希 <獻花歌 1行>
ㄴ. 無盡辯才叱海等 <稱讚如來歌 3行>
仏体叱海等成留焉日尸恨 <普皆廻向歌 5行>

(16ㄱ) '岩乎'는 중세국어로는 '바회'에 해당이 되지만 '乎'를 '회'로 읽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兪昌均 1996:261). 兪昌均(1996:262~263)은 '방구, 방우, 바이' 등의 경상도 방언에 비추어 '岩乎'를 '방고'로 해독하고 '乎'를 음절첨기 '오'로 보고 있다. 본고도 兪昌均(1996:262~263)의 견해를 따르는 입장인데 다만 '乎'의 음가를 살려 '岩乎'를 '바오'로 해독하고자 한다.

(16ㄴ) '海等'은 중세국어의 '바다ㅎ, 바롤' 중에서 '바롤' 쪽에 가까운데 해독은 '바돌' 정도가 된다(兪昌均 1996:895~896). 따라서 '等' 역시 음절첨기자로 분석된다.

이상으로 향가에 나타나는 음절첨기자 '理, 呂, 里, 利, 次, 史, 乎, 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밖에도 음절첨기가 된 형태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는 '寢矣'<處容歌 1行>, '本矣'<處容歌 1行>, '沙矣'<怨歌 6行>, '仏体(佛體)'<礼敬諸佛歌 2行, 5行, 7行, 廣修供養歌 7行, 懺悔業障歌 8行, 請仏住世歌 1行, 常隨仏學歌 1行, 8行, 恒順衆生歌 8行, 10行, 普皆廻向歌

5行, 9行, 總結无盡歌 8行> 등이 있다. 이제 이 음절첨기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7) 入良沙寢矣見昆 <處容歌 1行>
本矣吾下是如馬於隱 <處容歌 1行>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怨歌 6行>
慕呂白乎隱仏体前衣 <礼敬諸佛歌 2行>

'寢矣'는 그동안 '자리', '자릐', '잘ᄋᆡ' 등으로 해독되었는데 兪昌均(1996: 512~516)은 '잘ᄃᆡ'로 해독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處容歌'에서 '本矣'를 '본ᄃᆡ'라고 해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이 두 경우는 각각 '자- + -ㄹ + ᄃᆡ(ᄃᆞ + -ᄋᆡ)', '본(本) + ᄃᆡ(ᄃᆞ + -ᄋᆡ)'의 구성을 가져 'ᄃᆡ' 자체가 뒤에 결합한 형태이므로 위에서 살펴 본 음절첨기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14]

향가에 쓰인 '矣'는 대부분이 조사로서 '-ᄋᆡ/-의'로 해독되지만 이처럼 조사의 용법이 아닐 경우에는 'ᄃᆡ'로 해석되는데 이는 '爲乎矣(ᄒᆞ오ᄃᆡ), 是乎矣(이오ᄃᆡ)' 등 이두에서 '矣'가 'ᄃᆡ'로 읽히는 전통과 관련이 있다(李得春. 1993, 兪昌均. 1996:513~516). '矣'를 'ᄃᆡ'로 읽는 이러한 전통은 '矣'의 上古音이 'ᄃᆡ'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李得春 1993, 兪昌均 1996:514~516).

'沙矣'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 '몰애'(金完鎭 1980:142)로 보는 경우는 '矣'가 접사 '-애'에 대응된다고 보고 다시 접사 '-애'는 접사 '-개'에서 'ㄱ'이 탈락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는 兪昌均(1996:803)처럼 '矣'를 처소격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떻게 보든지 이 예 역시

14) '寢矣'를 '잘ᄃᆡ'라고 해독할 경우 관형사형 '-ㄹ'에 해당하는 표기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영준(1994)에서는 '慕人'(그릴 이:願往生歌 8行) 등에서 관형사형 '-ㄹ'이 생략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관형사형 '-ㄹ'에 해당하는 표기자가 없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음절첨기자들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仏体'는 산스크리트어 'Buddha'의 발음을 음차한 不飜語이므로 이 때의 '体'는 음절첨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17)의 예들은 얼핏 보기에는 음절첨기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절첨기자로 분석할 수 없는 것들이다.

4. 음절첨기의 원인

향가에서 첨기된 음절은 몇 예를 제외하고는 '리, 지, 시'로서 공교롭게도 모음 'ㅣ'로 끝나는 공통성을 갖는다. 하필 모음 'ㅣ'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국어에서 문법적으로 모음 'ㅣ'가 담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국어의 모음 'ㅣ'는 '격조사, 명사파생접미사, 명사결합접미사, 부사파생접미사, 피동·사동접미사, 서술격조사' 등 많은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이 중 특별히 명사결합접미사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접사가 붙는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 당ᄋᆡ앚<救急簡易方 3:83b>~당의야지<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12a>
당ᄋᆡ아지<月印千江之曲 上:61a>
귓돌왐<楞嚴經諺解 8:122b>~귓돌와미<杜詩諺解-初刊本 20:47b>
머굴<杜詩諺解-重刊本 13:14b>~머구리<法華經諺解 3:156b>
몯<月印釋譜 2:5b>~맏이(현대국어)
털<救急簡易方 1:83b>~터리<月印千江之曲 上:64a>
믈<月印釋譜 2:38a>~므리<釋譜詳節 6:7a>
갖<龍飛御天歌 1:11b>~가지<月印釋譜 1:43b>
풀<訓民正音 解例:24b>~프리<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11b>

(18)의 왼쪽은 접미사가 붙지 않은 어형이고 오른쪽은 접미사 '-이'가 붙은 어형이다. 그러나 이 두 어형 사이에 의미 차이는 없다. (18)의 예들과 (10)에서 살펴 보았던 예들을 중심으로 'ㄹ' 탈락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이는 예들을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19)는 'ㄹ' 탈락의 과정을 문헌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예들이다.

(19) 나리/nari/ > 내/nai/ > 내/nɛ/
누리/nuri/ > 뉘/nui/ > 뉘/nü/

그런데 (10)에서 살펴 본 것처럼 'ㄹ'이 아닌 'ㅣ'가 탈락하는 예들을 다시 적어 보면 (20)과 같다.

(20) 窟理 : 구리/kuri/ > 굴/kul/
汀理 : 벼리/pjəri/ > 별/pjəl(h)/

실제로 박종희(1987)은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21)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21) 드르ㅎ > 들[野]
거우루 > 거울[鏡]
주머귀 > 주먹
가마괴 > 가막(가치)
터리 > 털[毛]

(19), (20), (21)의 공통점은 제시된 예들을 모두 탈락으로 취급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과연 위의 예들을 모두 탈락으로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이'가 명사결합접미사로서 상대적

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리, 누리, 구리, 벼리, 터리' 등이 접사 첨가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들이 일음절 단어에 접사가 첨가되어 이루어진 단어들이라면 (22)와 같은 과정을 통해 현대국어의 모습을 갖게 된다.

(22) 날(川) + -이 → 나리/nari/ > 내/nai/ > 내/nɛ/
　　눌(世) + -이 → 누리/nuri/ > 뉘/nui/ > 뉘/nü/
　　굴(舊) + -이 → 구리/kuri/ > 굴/kul/
　　별(星) + -이 → 벼리/pjəri/ > 별/pjəl/
　　털(毛) + -이 → 터리/təri/ > 털/təl/

만약 (22)와 같은 구조가 사실이라면 마지막 음절을 첨기하는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7)에서 연철 표기의 예를 제시한 바 있는데 '未, 米' 등이 '-ㅁ + -이'로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22)와 같은 구조가 사실이고 당시 표기자들이 접사에 대한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ㄹ + -이'가 '理, 里, 利, 呂' 등으로 표기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마지막 음절의 종성과 후행하는 조사를 한 음절로 연철하여 말음첨기의 효과를 보인 (7)의 예와 종래에 음절첨기로 보았던 (9), (11), (12), (13), (14), (15)의 예는 같은 구조를 보이는 것이다. 다만 (6)에서는 후행요소가 조사인 반면 (9), (11), (12), (13), (14), (15)에서는 후행요소가 접미사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12), (13), (14)의 명사들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23) 吾里 : 울 + -이 → 우리
　　逢次 : 다봊 + -이 → 다보지

枝次 : 갖 + -이 → 가지
母史 : 엇 + -이 → 어싀
兒史 : 즛 + -이 → 즈싀
栢史 : 잣 + -이 → 자싀
歲史 : 숯 + -이 → 수싀

'우리'는 '울 + -이'로 분석되는데 '울타리'를 뜻하는 '울'에 접미사 '-이'가 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명사 '우리'는 '자기를 포함한 특정 범위 내'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울타리'를 뜻하는 '울'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15] 현대국어에서 '울타리'의 의미를 갖는 '우리'와 대명사인 '우리'가 동음이의어로 공존할 뿐만 아니라 중세국어에서도 '울타리'의 의미를 갖는 '우리'<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下:4b>와 대명사인 '우리'<釋譜詳節 6:5a>가 동음이의어로 존재하였으므로 그 관련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 대명사 '우리'는 구어체에서는 '울 엄마'와 같이 마지막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21)에서 보이는 '굴 + -이 → 구리 > 굴', '별 + -이 → 벼리 > 별', '털 + -이 → 터리 > 털'과 같은 모습이다.[16] 이렇게 접미사가 붙었다가 후대에 다시 떨어지는 것은 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구리, 벼리, 터리' 등이 단일어처럼 인식되다가 다시 모음의 탈락을 입거나 ② 접사가 붙은 형태와 접사가 붙지 않은 형태가 계속 공존하다가 접사가 붙은 형태가 소멸되었기 때문으로 보

15) 2인칭 대명사의 복수가 '너 + -희'로 분석되는 '너희'인 데 반해 1인칭 대명사의 복수는 '나 + -희'의 구성을 이루지 못하고 '울 + -이'의 구성으로 이루어졌음이 흥미롭다.

16) 물론 '굴 + -이 → 구리 > 굴', '별 + -이 → 벼리 > 별', '털 + -이 → 터리 > 털'은 통시적인 변화인 반면 대명사 '우리 → 울'은 공시적, 화용적 성격이기 때문에 완벽한 비교 짝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양상에서는 같은 모습을 보이므로 비교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다. '털 ~ 터리'가 후자의 모습을 보인다.

'울타리'를 뜻하는 어휘로 '울'과 '우리'가 공존하는 것도 '울 + -이 > 우리'의 공식을 확신시켜 준다. '울'과 '우리'는 물론 약간의 의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중세국어에서는 각각 '울ㅎ'과 '우리'로 쓰였는데 '울타리' 역시 접사가 붙은 '울ㅎ + -다리'의 구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어, 근본이 되는 어근은 단음절어 '울'임을 알 수 있다.

(24) 그 ᄢᅴ 諸子ㅣ 아비의 便安히 안존 ᄃᆞᆯ 알오 다 아ᄇᆡ게 가 아ᄇᆡ게 ᄆᆞᆯ오ᄃᆡ <法華經諺解 2:138b>

(24)에서 '아비의'는 '아비 + -의'로 분석되지만 '아ᄇᆡ게'는 '압 + -ᄋᆡ게'로 분석되어 '父'가 '압'과 '아비'의 형태를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아비'는 '압 + -이'로 분석할 수 있어 (22)와 (23)이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25) 思母曲 俗稱엇노리○界面調 <時用鄕樂譜 p20>

'어ㅿ'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중세국어 형태가 '어ㅿ'였음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 (25)와 같은 예에서는 '엇'의 형태가 나타난다. 따라서 '어ㅿ'는 '엇'에 접미사 '-이'가 붙은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언의 음절첨기의 예이다. 용언의 음절첨기의 예를 다시 모아 보면 (26)과 같다.

(26) 郎也慕理尸心未 行乎尸道尸 <慕竹旨郎歌 7行>
慕呂白乎隱仏体前衣 <礼敬諸佛歌 2行>
塵塵虛物叱邀呂白乎隱 <稱讚如來歌 5行>

刹刹每如邀里白乎隱 <礼敬諸佛歌 6行>

이들 역시 접사가 결합한 형태로 본다면 '글- + -이- → 그리-', '기들- + -이- → 기드리-'와 같은 분석이 될 것이다. 문헌상에서 '글다'[慕]와 '기들다'[邀]와 같은 기본형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기드리다'의 경우 중세국어 문헌에서 '기들오다, 기둘우다' 형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라도 방언형에서도 '기달리다, 기달기다'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드리다, 기들오다, 기들우다'의 어근이 '기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다'의 경우에는 어근 '글-'[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이 아쉽지만 그 외의 예에서는 모두 '-이-'가 접사로 분석될 수 있으므로 음절첨기에 대한 의문을 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17]

한편 申東河(1985)는 여러 금석문과 『三國史記』『三國遺事』의 인명 표기의 마지막에 '智(t'ię), 知(t'ię), 次(tsi), 之(tśi), 利(lji), 里(lji), 兮(riei > hi), 支(tsię), 只(tsię)' 등의 음절이 출현하는 현상을 보고하고 있다. 千素英(1990:165~167)은 이들을 존칭접미어로 취급하였지만, 동물명에서 '귓돌왐<楞嚴經諺解 8:122>~귓돌와미<杜詩諺解-初刊本 20:47>'나 '머굴<杜詩諺解-重刊本 13:14>~머구리<法華經諺解 3:156>'와 같이 접미사 '-이'를 사용하는 점, 현대국어의 인명에서 '개똥이, 영순이, 영철이'와 같이 접미사 '-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역시 인명표기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음절의 표시는 '종성 + -이'의 구성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향찰에서 음절첨기로 생각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은 '종성 + -이'의 구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된다.

17) 많은 접미사들 중에서 왜 하필 '-이'만 주로 사용되었느냐 하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향가 25수가 당시의 모든 어휘들을 보여 주기에는 양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고려시대 구결에서 자주 나타나는 공동격조사 '-와/-과'가 향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당시에 이 조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작품의 수가 너무 적어 우연히 표기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6)에서 음절첨기로 분류했던 '岩乎, 海等'은 각각 '바오, ᄇᆞᄃᆞᆯ'로 추정되며 이들은 '방 + -오, 볻 + -ᄋᆞᆯ'의 구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때의 '-오, -ᄋᆞᆯ'은 '-이'와 마찬가지로 접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바오, ᄇᆞᄃᆞᆯ'을 파생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므로 이들의 분석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결론

지금까지 향찰 표기의 첨기 현상을 '종성첨기'와 '음절첨기'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종전의 연구에서는 종성첨기에 대해서는 '종성의 인식' 때문이라는 설명이 지배적이었고 음절첨기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상 그 자체를 기술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러나 본고는 종성첨기가 단순히 종성의 인식에 의해서만 생겨났다기보다는 향찰의 표기법 자체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았고 음절첨기는 단순히 단일어의 말음절을 첨기한 것이 아니라 체언의 곡용형에서 '종성 + 조사'를 첨기하듯 접사에 대한 인식에 의해 '종성 + 접미사'의 구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종성첨기와 음절첨기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전자와 후자 모두 선행음절의 종성과 후행 음절의 모음이 연결될 때 연음이 되는 현상을 발음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 것이다.

지금까지 종성첨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나마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었으나 음절첨기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없었는데, 본고는 위와 같은 통일된 관점을 통하여 종성첨기와 음절첨기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향가의 첨기 현상과 관련하

여 향찰표기 체제가 정교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는데 본고는 종성첨기와 음절첨기의 기제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표기 체계상 첨기현상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아 향가의 표기 체계 자체에 일관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제약과 필자의 부족함으로 인해 각각의 어형에 대한 분석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향가의 표기 원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더 설명력 있는 연구 성과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姜　榮(1987), 「音節末形態音素 表記借字에 對한 考察－鄕歌를 中心으로－」, 高麗大碩士學位論文.

고창수(1992), 「고대국어의 구조격 연구」, 고려대박사학위논문.

권재선(1987), 『국어학발달사』, 고시출판사.

김상돈(1997), 「훈민정음의 삼분적 요소에 대하여」,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김선기(1973), 「백제 지명 속에 잇는 고대 음운 변천」, 『백제연구』 4.

_____(1993), 『옛적 노래의 새풀이－鄕歌新釋－』, 서울: 普成文化社.

김양진(1997), 「鄕札字 '叱'의 用法과 機能」,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金完鎭(1980), 『鄕歌解讀法硏究』,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_____·정　광·장소원(1997), 『국어학사』,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金裕範(1998), 「慕竹旨郎歌 '阿冬音'의 解讀 再考」, 『한국어학』 7.

金俊榮(1979), 『鄕歌文學』, 대구: 螢雪出版社.

金洪坤(1977), 「固有語表記에 使用된 [叱]字의 音價變移에 對한 考察」, 『국어국문학』 75.

都守熙(1987), 「古代國語의 音韻變化」, 『한국語學과 알타이語學』, 대구: 曉星女子大學校 出版部.

閔賢植(1995), 「문자론과 차자법」,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太學社.
朴炳采(1966), 「鄕歌 表記의 源流的 考察」, 『국어국문학』 32.
박영준(1994), 「고대국어의 시제－향가를 중심으로－」, 『어문논집』(고려대) 33.
_____(1997), 「향가에 사용된 '只'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의 이해와 전망』,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박종희(1987), 「ㅎ末音 체언의 通時的 연구」, 『圓大論文集』 21-2.
裵大溫(1986a), 「借字表記 '只'字에 대하여」, 『嶺南語文學』 13.
_____(1986b), 「차자표기의 음절말 자음에 대하여」, 『배달말』 11.
_____(1987), 「차자표기의 음절말 자음에 대한 고찰」, 『배달말』 12.
徐在克(1975), 『新羅 鄕歌의 語彙 硏究』, 대구: 啓明大學校出版部.
小倉進平(1929), 『鄕歌及吏讀の硏究』, 京城: 京城帝國大學.
宋在周(1983), 「鄕歌表記 '只'에 對한 硏究」, 『人文科學硏究』(朝鮮大) 5.
_____(1990), 「彗星歌 "舊理東尸汀叱"에 對하여」, 『人文科學硏究』(朝鮮大) 12.
申東河(1985), 「古代의 人名末音節考－古代 金石文 資料 硏究 1－」, 『同大論叢』(同德女大) 15.
신중진(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口訣硏究』 4.
梁柱東(1965), 『增訂古歌硏究』, 서울: 一潮閣.
兪昌均(1970), 「「蒙古韻略」 硏究 序說」, 『명대논문집』 2.
_____(1973), 「鄕歌의 '只'자 表記에 對하여」, 『淸溪 金思燁博士 頌壽紀念論叢』, 대구: 學文社.
_____(1979), 『東國正韻』, 서울: 螢雪出版社.
_____(1996), 『補訂 鄕歌批解』, 서울: 螢雪出版社.
이건식(1995), 「鄕札과 釋讀口訣의 訓讀末音添記에 대하여」,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太學社.
李得春(1993), 「차자표기연구와 중국음운학」, 『韓國文化』(서울大) 14.
李丞宰(1989), 「借字表記 硏究와 訓民正音의 文字論的 硏究에 대하여」, 『國語學』 19.
_____(1991), 「鄕歌의 遣只賜와 舊譯仁王經 口訣의 ㅁㅅ에 대하여」,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望』, 서울: 민음사.
임용기(1992), 「『훈민정음』에 나타난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세종학

연구』(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7.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 233.
_____(1997), 「삼분법과 훈민정음의 체계」, 『國語史硏究』, 서울: 태학사.
정렬모(1965), 『향가연구』,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鄭在永(1995), 「'ㅅ'형 부사와 'ㄷ'형 부사」, 『國語史와 借字表記』, 서울: 太學社.
千素英(1990), 『古代國語의 語彙硏究』, 서울: 高麗大學校民族文化硏究所.
최남희(1986), 『고려향가의 차자표기법 연구』, 서울: 弘文閣.
崔範勳(1977), 『漢字借用表記體系硏究』, 서울: 東國大學校 韓國學硏究所.
홍기문(1956), 『향가해석』,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